



용인, 16·17일 학부제 전공선택권 거부 찬반투표

시행 원년, 지난 1년간 학내분규의 '발씨'로 불리던 용인대학이 학부제에 오는 16일(수)·17일(목) 전공선택권 거부·찬반에 대한 학부 1학년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공선택권 완전보장'을 위한 학회개정을 열기로 하고 진행된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학당국과의 협의를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눈앞에 다가온 전공선택권 시기인 학부제에 대해 '전공선택권 거부'라는 최후의 카드를 제시하며 한 걸음으로 보인다. 학회회는 총투표에서 거부가 가결될 경우 전공선택권 관련 모든 학사입장을 거부할 것을 결정, '전공선택권 완전보장'이라는 학회회의 요구는 대학당국과 빠른 시일내에 어느 한데로든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완전보장'을 위한 학회개정에 대해 10일(목) 총장은 용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제도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며 "현재 전공인원 비율을 110%에서 120%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학생회는 대학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상과 함께 16일(수)·17일(목) 실시되는 총투표를 학생들의 대대적인 관심과 힘으로 치루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주 학생회는 학회개정을 요구하는 600명의 서명서를 교무처 앞에 부착하고 각 단대 로비에 서명가맹대를 설치,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7일(월) 열린 학대운영회의에서 학부제 투쟁을 도모, 간부들의 결의를 모아내고 학부 1학년 대표자 회

의를 통해 교양과 학년토론회 개최를 결정했다.

또한 학생회는 학부제 투쟁의 정당성과 현재 상황에 대해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교수들에게 설명서를 채택하여 전달했다. 또한 지난 12일(토)·13일(일) 각 단아별 간부대회를 열고 총투표 성사를 위한 합대지기의 장을 가졌다.

학부제 투쟁과 관련,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모상훈(인문·사학 4)군은 "이번 총투표에 대해 대학당국은 정계위원회를 열어 간부들을 징계할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우리들의 투쟁은 학부제 실시 결정당시부터 정당했으며 이번 총투표는 우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영 기자



용인캠퍼스 제3회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 본 공연이 지난 12(토), 13(일) 양일간 리틀엔젤스회관에서 개최됐다. '21C 통일한국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영화제·동화음악제에 이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많은 학생들과 각국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으며 자원봉사단의 노력으로 더욱 빛났다.

김학영 기자



아직도 3월인줄 아느냐(?)

▲10월이다. 학교 안팎으로 찬 바람이 휘돈다. 곧 겨울이라든가 일듯한 남북관계, 여전히 엉망인 경제, 그리고 학교발전 열망으로 뒤덮인 외대. 거센 찬 바람속에서 외대의 학원자주화 투쟁도 결실을 바래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안이 적힌 선전물도 포위와 본관과 붉은 광장의 농성단, 점심시간을 울리는 나팔소리, 서울캠퍼스의 7300은 11차례 걸친 협상 끝에 교학협회의 신상과 재단장인 김학중을 얻어냈다. 96년 한해 민주남부를 걸치며 줄기차게 진행된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는 전공을 위임받은 학생회장과의 세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내실을 갖춘 정립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하지만 세부협상의 진행은 오히려 정립의 의미를 무색케하고 있다. 총학생회장의 불발연행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단단히 담아내고자 협상에 임하는 총학생회와 달리 학교측은 뜻밖의 관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협상에서 약속된 사항들에 트집잡기는 국제대학신문을 앞두고 조금씩 앞바퀴를 돌려가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협상자리에서 학교측은 '아직도 3월인줄 아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앞길 중반에 접어들어 학회회의 시기적 한계를 발미로 시간끌기를 하겠다는 태도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외대발전의 열정을 총학생회의 단발성 사업으로 보는 아둔함이 경악스럽다.

▲지금은 10월이다. 투쟁의 달 10월이다. 화강실 가기 전후 마음이 다른 학교와 달리 외대발전의 열망은 시간이 재빨리 더욱 커져 보인다. 학부투쟁을 한번이 '준'만 만들고자 하는 학교앞에 걸칠 수 없는 외대발전투쟁은 영원한 것이다. 외대발전의 의지가 끝끝내 외대에는 학교에 대해 성실한 협상자세를 얻어내고자 한다. 우리의 순수한 외대발전의 열정을 다시 들이밀어 보여줄 때다.

▲지금은 10월이다. 투쟁의 달, 외대발전의 달 10월인 것이다.

한승주

무죄석방을 위한 열기 뜨거워

서울 총학 대책위 구성...후원사업 활발

△이적단체인 경찰, 직권강제,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진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죄 등의 혐의로 지난 1일(화) 구속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박성동(상경·경영 4)군이 지난 10일(목) 상공주지소로 이관돼 본격적인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총학생회에서도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후원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위원회가 상경대를 주축으로 꾸려졌고 대책위원회의 일일회프가 오는 18일(금) 열릴 예정이다.

또 6개 단대학회, 동아리연합회, 상경대 예비역들은 지난 10일(목) 한겨레신문 5면에 학자투쟁선언과 총학생회장 석방을 내용으로 한 광고를 학생들의 도움기금으로 게재했다.

한편, 학교측에서는 학생처 등 직원

들이 한차례 총학생회장 면회를 다녀왔으나 또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 밖에도 총학생회는 후원사업을 진행하며 지난주부터는 나팔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상경대 예비역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알리는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 총학생회장, 석방운동을 다각적으로 벌이고 있다.

박운정 기자

서울 총학, 16일 정기총회

서울캠퍼스 2학기 정기학생총회가 오는 16일(수) 노원구에서 열린다. 지난 학기부터 외대발전의 의지로 시작된 민주남부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정기총회의 자리에서는 그간의 민남투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기총회를 통해 이후 투쟁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지도 마련된다. 총학생회측은 "민주남부가 1300명이라는 적은수가 참여 분할투표로 정립했지만 학원자주

화의 지속성과 그 개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줬다"며 성과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이런 측면을 중심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총학생회장 나인우(통양·이과 4)군은 "민주남부가 마감·정리됐으나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정기학생총회는 이후 투쟁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종훈 기자

혼돈의 역사에서 인류의 화합으로

96세민전, 성황리 개최

혼돈의 역사에서 인류의 화합으로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한 제3회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이 12일(토)·13일(일) 양일간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열린 본공연에 끝으로 그 13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1일 2회 공연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세민전 본 공연은 총 2000여명의 학생과 500여명의 외부 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 행사 2부 '인류 화합을 향한 발걸음'에서는 총 18개 과가 그동안 준비한 독특한 민속춤과 노래들로 마련됐다. 그 중 A조 첫째 마당에 출연한 서반아어과는 의상의 화려함과 '롤라피고' '탱고'와 같은 정열적인 춤으로 많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스페인 특유의 투우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다른 과와 구분짓고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라틴바와 '현세라'를 불러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민속춤 노래로 그 나라의 문화를 알리고자 했던 과거와는 달리 일본어과는 일본 제국의 '쇼로'를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교수들의 자분과 비아도를 통하여 연습하고 직접 경기복을 제작한 이들은 스킨을 통해 스포를 상영하고 즉흥적인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총과 노래로 아끼던 단순해 질 수 있는 공연에 신선함을 제시했다.

또한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한국팀의 진도 강강술래와 풍물 한마당은 대중과 화합의 자리임을 느끼게 하며 행사장의 열기를 더해가는 공연이었다. 마지막으 각 나라의 기수들이 어우러진 풍물 한마당과 '7000년'이 함께 하는 21세기 통일 한국의 비전'이라는 것발출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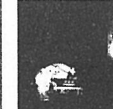
홍연화 기자

지 면 안 내

정기국회가 백백하다

긴급 설문조사.....9면
정기국회 회기동안 개정된 사안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대학을 넘어 혼돈을 겪고.....7면
용인캠퍼스 제11회 FDS 방송제 속으로 들어가자



나는 동생이다.....6면
본과 최초로 동생제가 도입이 되고 있다. 모임의 회장을 만나본다.

노개워, '더이상 동생제'.....8면
민주노총, '총파업하겠다'.....1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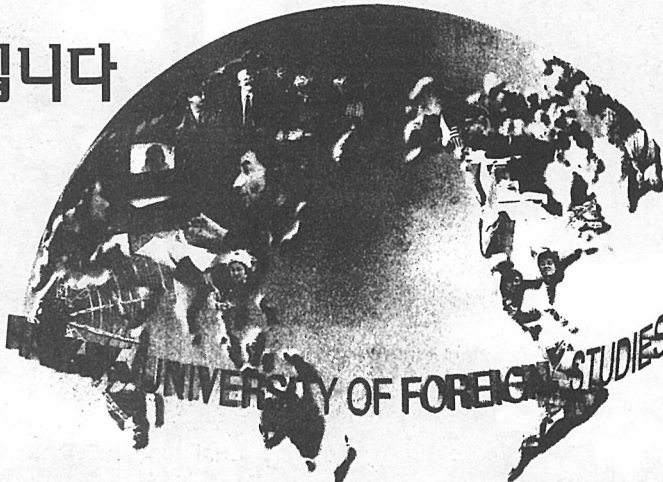
대학교육의 희망찾기.....10면
올바른 대학평가.....10면
학내구성원의 자주적 참여는 평가란 존재할 수 없는 것.

사건으로 보는
'21C 통일한국의 비전' 11면

세계속에 한국을 일궈온 이 바로 외대인입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세계속의 한국'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를 호흡하는 젊은 가슴들이 모여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 전 세계 41개국 70개 명문대학과 학문교류
- 최다의 외국인 교수진
- 전세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위성방송시스템 운영
- AICC(국제회의 통역사협회)로부터 아시아 유일의 우수통역기관으로 선정된 통역대학원 운영
- 세계지리연구의 요람 -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운영



사설

올바른 교육법 개정 시급하다

올해 정기국의 교육위 국정감사가 지난 30일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15대 정기국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제 곧 돌아다실 교육개방으로 대학이 생존의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다.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을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고등교육 환경개선, 우리나라 대학의 오열등으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학교법인의 비리와 정월, 대학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대학총합평가 인정제, '담근과 재학'으로 대학을 위협화시키는 대안없는 학부제, 탐구적 교육방법인 5·3 교육개혁안과 이따라 발표된 2, 3차 교육개혁안 등 대학이 돌아야 할 속에는 그야말로 산적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설립자 및 친인척에 의한 독단적 대학운영으로 6개월동안 파행을 거듭해 온 계명대를 비롯해 삼지대, 청주대, 한양대 등이 학내분규를 일으키고 있고 87년 6월 형평이후 대학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 총장직선제가 연세대, 계명대 등 9개 대학에서 폐지가 확정되고 학내대학을 폐지할 학교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 출발부터 우리를 실망시킨다. 96 한총련 연세대 통일투쟁을 비롯한 사학사건과 교육개혁, 대학평가에 관한 사안들이 집중되는 것을 뿐 여전한 대학에 기속하고 있는 사회제에 비리 문제, 교육재정문제 등 주요 현안으로 쟁점화되리라고 예상했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담당 의원들의 연구·조사의 미흡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교육부가 감사를 조기에 종료시키려는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연출해 졸속감사는 우리의 목소리에도 어긋나고 있다.

제 181의 정기국회 법안 처리계획에 따르면 고등교육과 직접 관련된 법안은 △고등교육법 △교육법 중 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 △대학운영에 관한 학위취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에 관한 법률 △대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을 들린다.

이 중에서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의 총·학장을 임명하는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여 해임요건 강화 △사립대학 교원임용도 국립대학 교원에 준하여 이의제도로 함으로써 국립대학교와 사립학교장간에 신분보장의 편향을 가하는 방향으로 부분개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렇듯 무수히 쏟아진 교육법 개정부분에서 우리가 주저해야 할 부분은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인사권, 행정권, 재정권의 자율성과 공개성 확보 여부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중에서 얼마전 발표했던 제3차 공개안은 사학재단에 재단이사회의 구성권을 주고 대학 교수들에게는 경영의 구성권을 주어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또한 사립대학의 예산내 내역을 공개해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단이사회의 구성과 관련된 '이사회의 정수 책정과 인적 구성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정원에 위임한다' 부분과 총·학장을 재단에서 임명하는 것만 아니라 교수들 비롯한 대학구성원들과 참여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총장직선제를 재단이사회의 임명권으로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민주화에 역행하는 심각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예산내 공개부분에서든 학교의 예산내 편성상의 독립에 대해서는 일원만으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이같은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독소조항까지 첨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학에서 가장 마지못해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대학과 언론이라고 한다. 진리의 상이대이라고 자처하는 대학이 어느새 자본과 경쟁의 이해관계에 길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으로 전락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선도해야 할 대학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보와 이등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대학이 본연의 지위와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법 이 그대로 통과되서는 안된다. 교육이 정치적인 사안에 의해 눌려나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번 정기국회가 교육개혁이 아닌 정권장 교육개혁(正)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견제, 감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출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누십시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이며, 서울·용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발송합니다. (하이텔, 나우누리 OEDAE 모두 동일)재택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체육관 건립으로
용인캠퍼스 역사 일구자

고학년 선배들과 술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다. 바로 용인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는 큰 부분으로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는 것과 많은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고학년 선배들은 빼놓지 않고 용인의 학사부흥의 역사를 자세히 말해주는 주신다.

어쨌든 한 건물로 시작해서 지금의 후생관 건립 때까지는 17년이 걸렸으며 예산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왔다. 지금 모습의 용인이 있기까지는 바로 선배들의 기발한 복지 투쟁이 있었다. 허나 지금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우리들은 '만족을 하라'라는 의문이 든다. 아직 학내에 남아있는 많은 선배들은 지금 교육환경에 만족할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의 학생들은 아직도 풀지 못한 여러 복지 사안들을 그 선배들이 해왔던 투쟁으로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 당국은 그렇게 많은 건물들을 학생 등록금으로 세우고도 여전히 건설사에게 100여억원 중 학우들이 낸 등록금 50여억정도를 쓰고 있다. 선배들의 투쟁으로 세워진 건물들 사이에서도 아직 운동하는 곳은 흙 먼지가 뿌려지고 있고 남아있기도 하지만 다치지 쉬운 곳이다. 지금 교양과목에서 체육 과목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후생관을 세울 수 있었던 투쟁으로 또 하나의 용인의 역사를 만들었으면 한다. 바로 체육관 건립투쟁 말이다. 투쟁으로 세워진 용인 건물들의 박물관 하나 하나가 선배들의 등록금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말이다.

이승환(사학·영역 3)

자율적 노력을 통해
모순을 극복해야

가을이 전천후 우리 외대인에게 다가오면서 나날대로의 절실을 맺는 행사들이 바쁘게 준비되고 있다. 각 과에서는 대부분 학술제와 예술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동아리들도 자기 성격에 맞는 예를 들어, 영화제, 원어연극, 모의 재현, 전시회 등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 과에서도 이번 가을에 2년 마다 열리는 학·예술제를 준비하고 있다. 마

무래도 가을에 축제가 없는 만큼 이 행사는 우리와 400학생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까지 여기에 적어 볼까 한다.

우선 우리 예술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지만 독일식 모의결혼식, 비어 축제, 원어연극, 포크 댄스 등을 들을 수 있는데 독일의 문화와 그 속의 특징 등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함께 공유해 보자는 의의를 담고 있다. 이는 독일의 단편을 총내내거기에 불과하지만 한 장 실습에 가깝고 좀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 첫째가 바로 자금 문제이다.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실험실습비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공평화회에서 낸 자료집을 보니 광고에 뒤통까지 합쳐 3경이나 되는 돈을 보았다. 그 돈들이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 얼마나 합들게 발로 뛰어야 했을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이 물질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최근 협상에서 실패할 때마다 우리 학생 입장이 보강된 듯이만 앞으로 우리의 배움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한편 행사에 학교의 지원을 간절하는 우리들의 관심과 더욱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든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22개의 과, 60여개의 동아리가 있다. 그런데 각 과나 동아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사 장소는 대강당, 소강당, 6년동 지하의 큰 강의실, 마지못해 노안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장소인 대강당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수업이나 영화 상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고 노안은 우천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이러한 장소들이 언제나 마음놓고 빌릴 수 있는것도 아니고 학기 초에 사전 예약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각 과나 동아리들은 자칫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마저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게 된다. 이 또한 우리 외대의 자율적인 배움의 길을 막는 악조건이다.

교수 연구중심으로 하는 대학원을 산점할 수 있는 것도 좋지않은 우리가 배운 것을 자율적으로 다른 학우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역시 절실하다. 이번 학기 투쟁을 통해서 많은 성과들을 얻긴 했지만 학생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외대인 스스로가 일깨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 가을 열심히 뛰고 있는 학우들에게 뜻있는 결실이 맺히길 바란다.

이동호 (사학·독일 2)

외대발전의 확산
민중투쟁에서 배운다

민주투쟁이 정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일한 학생으로서 평가를 하려면 올해 외대 학사 투쟁의 핵심이었던 민주투쟁이 총학생회나 단원학생회 측이 학생들에게 그 당위성이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득 또는 참고 할 기회가 많이 부족하거나 방법상의 서투름이 있었다고 본다.

학생들을 일대일로 서로 대면해서 고민하기 보다 학회측의 확고한 입장·민주투쟁의 당위성·민중 투쟁, 강요하는 데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중의 서신보내기 작업상의 많은 문제점·학우들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민중투쟁)상의 문제점과 그 뒤에 뒤따를 문제점을 열두두에 두지 못하고 우연히 겹쳐가게 된 학부보급의 한층된 사태와 더불어 한 노력들이 참여하지 않는 학우대중들에 의해 무산되고 또다시 과 단위로 돌아가게 되는 오류를 보았다.

지금 열리고 있는 학술제와 예술제 등은 이렇듯 외대발전의 일환으로 동일목표선 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술제 준비로 또는 학술제 준비로 민주투쟁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단원일꾼들의 말을 듣고 평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술문화진흥회가 착한 캠퍼스에서 올곧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일상적 요구를 받아내고 단원 학생 대를 지킬 정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옥재(사학·무역 2)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술제

10월을 맞아 학술제와 예술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플래카드가 캠퍼스에 어지러이 걸려있다.

작년에는 총학생회 주도의 10월 학술제가 '외대 학술공동 조상'이란 이름으로 과·단위 단위의 학술행사를 한 적이 있다. 예술제 역시 '작은 세민정'이란 이름으로 공연을 함께 준비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중앙으로 집중하는 행사가 아닌 과·단위 단위의 자립적인

헛소리 하는 고질병이 또 도쳤구나.

내가 한번 고쳐 줬지만...

- 안용복 -

동해물이 마르고 배두산이 닳아빠져! 내대 땅이나. - 등대지기 - 말해서 나가되만 계속 말해. - TOM - 독도는 일본 땅. 일본은 우리 땅. - 아랍어과 아랍 - 이건 너무 심하잖아! -양심불이 먹은 아- 우리도 잠수함 타고 일본으로 가자! -홍-	 무장공비 생포하여 일본을 초토화시키자. -HUS 특공대장-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 일 레라 - 내가 배에서 서있을 때 배에서 기린 놈들이... - 홍무공 - - 박애주의자 -
--	--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총학생회 측의 행사가 아니라 과·단위 단위의 행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지난해 총학생회에서 학술부를 꾸리고 학술제를 준비한 것은 외대에 정당한 학술중도를 통해 외대발전을 꾀하기 위한 일꾼들이고도 생각된다. 하지만 외대 한 노력들이 참여하지 않는 학우대중들에 의해 무산되고 또다시 과 단위로 돌아가게 되는 오류를 보았다.

지금 열리고 있는 학술제와 예술제 등은 이렇듯 외대발전의 일환으로 동일목표선 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술제 준비로 또는 학술제 준비로 민주투쟁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단원일꾼들의 말을 듣고 평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술문화진흥회가 착한 캠퍼스에서 올곧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일상적 요구를 받아내고 단원 학생 대를 지킬 정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동범(법·법학 3)

OECD가입 국회가 저지해야

11(금)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이 확정됐다. 작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 정부가 들인 공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김영삼정권이 OECD를 들고 싶어했던 OECD는 어떤 단체인가? OECD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모여 세계경제 현안을 협의하는 클럽형태의 모임이다. OECD는 국제연합(UN)이나 세계무역기구(WTO)처럼 협상을 통해 국제규범을 만들고 위반하는 국가를 제재할 수 있다.

김영삼정권은 개발도상국으로의 5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OECD에 가입하려고 그렇게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재벌을 살찌우고 OECD가입을 자신의 공적으로 자랑해 내는 대신에서 정권재창출을 이뤄내기 위함이다. 신권안정국을 조성하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의 틀을 잡아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OECD가입은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미칠까? OECD가입은 1차적으로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각종 규제와 관세의 철폐를 포함 수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흐름을 선취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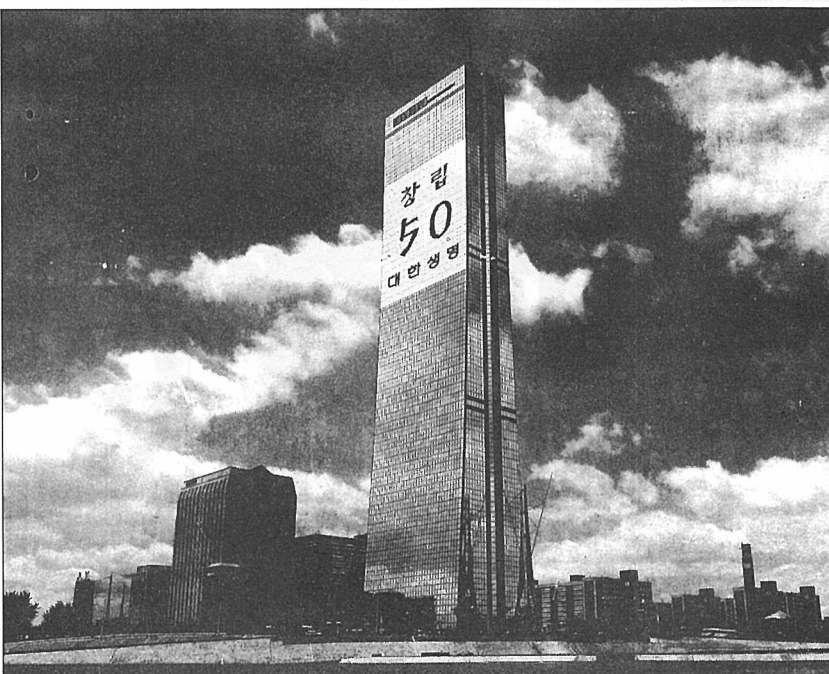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이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선형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경제흐름을 좌우하는 대동맥인 금융기관 개방화의 필요에 힘입어 금융기관 개방을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모두 외국 거대자본에 넘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노동법을 포함한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현 노동법 개정 상황이 개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노동조건과 삶의 질이 더 악화될 것이다. 사회복지 수준도 한심하기만 하다.

그리고 재벌본체의 경제구조도 개혁해야 한다. 현 상태로 시장이 개방될 경우 기술발전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은 몰락할 것이고 대기업들은 경쟁력제거만을 문은, 노동조건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쟁력 저하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OECD가입은 시기상조이며 정치수단이다.

OECD가입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국회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주위의 여권은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 야당이 나라를 생각해 행동할 때다. 야당은 더 이상 정부의 놀음에 놀아나지 말고 OECD가입을 국회 비준에서 보류해야 한다.

신현민(상경계열 1)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생명-
무한한 기회와 비전이 있습니다.

열린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 지식, 경력을 소유한 직원이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내 공채제도- 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재상상의 의지입니다.

자아발현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종합금융그룹의 국내 및 해외 투자자산을 운용할 21C FIED과정- 사내공채제도를 통해 선발, 국내 및 국제연수기관에서 2년간 연구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신바람 나는 회사 구원을 위한 열린인사의 실현입니다.



21C FIED과정 : Financial Expert Development

글 쓰는 순서

- 1.외대인의 인식
- 2.국내 지역학의 수준
- 3.본교지역학의 제도적 문제
- 4.타대학 탐방
- 5.학과에서의 지역학
- 6.지역학 발전에 대해

①대의 살길은...지역학?

학생들과 함께하는 발전만이 '진정한 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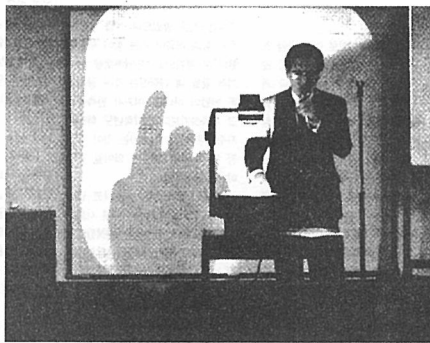
산재한 문제 극복안 · 책임있는 추진 절실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학원시장개방'은 국내의 대학들이 설립이후 갖는 최대의 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대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외대는 외국어를 대표과목으로 해온만큼 외국대학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 본교의 설 자리는 없어진다는 것이 외대 구성원들의 우려였다. 그대 부터 외대가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지역학'이다.

본교의 지역학은 대학원에 개설돼 있는 석박사과정용 통해 연구되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지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본교의 지역학 연구실현의 현재와 제도에 대해 생색을 하고 있다.

대학원생이나 학생들 할 것들이 가장 큰 문제로 제시하는 것은 '전문인력의 총합'이다. 현재 본교에 지역학이 전공인 교수는 많은 편이 못 된다. 각과마다 지역학과목이 있음에도 전문적으로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다. 현재 학부에 개설돼있는 지역학과목 시간에는 담당지역에서 오랫동안 유학생활이 있거나 하는 교수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얘기하는 정도가 많다. 또 일부 대학원 학과의 경우 아학전공 교수들이 수업을 하고 있거나 강사들로 충당하고 있어 학부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학부에서 수업을 하는 교수들이 대학원에서도 동시에 강의를 해서 교수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전임교수의 부재는 공부를 하는 당사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대학원과정을 마친 후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책임자가 없다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국유학을 통해 다시 공부를 하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외국유학에 취업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연구비의 부족이다.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간사들은 연구하는 것은 '머리만' 하고 하



본교지역학 발전의 살길은 찾기만 쉽지 않다. 교수총합, 자료비중 등 해결할 문제도 많다. 그러나 학교의 의지와 학생들의 관심만 있다면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는 것은 아니다. 연구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장비가 만만치않은데 이래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타대학과 비교해봤을 때 서울대와 본교의 예산은 큰 차이를 보인다.

세 번째는 자료의 부족이다. 전문적으로 가르쳐 줄 교수가 부족하다보니 대학원생들이나 지역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들은 스스로 자료를 수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이 어학이나 문학에 대한 것이다. 지역에 대한 자료라고 해서 역사학자 계속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대부분이다. 학생

들은 그래서 아예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기 보다는 또 돈을 들여서 책을 사거나 타대학 연구소, 도서관을 전전하며 자료를 구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것은 지역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위상이나 가치에 대한 것이다. 실상 지역학에서 연구하는 자료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대기업에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던가, 정부에서 외교나 교역에 필요로 하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학은 여타의 학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실용적이다. 그러나 그 현상만을 보고 지역학의 가치를 얘기할 때 '실용성'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학은 외국을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한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공부해보면 하나의 흐름을 읽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학은 단순히 현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현상에 녹아있는 본질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지역학은 학문(Science)이 아니라 연구(Study)로 규정되기 때문에 지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더 심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치학이런 미국학의 하부학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학이

라는 기존의 학문에서 세부적으로 갈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학은 이러한 학제간의 조화와 공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학문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함께 논의하고 조정하는 타이밍은 어디에도 마련돼있지 않다.

학교에서는 얼마전부터 국제대학원 설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의 학교 전체의 발전이라고 보기는 아직 무리가 따른다. 계획 자체가 대외의 상태에서 학내 소수의 교수들에 의해 진행됐기 때문이다. 본교 역시 총장과 연구협력처장,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부장만이 갖고 있는 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아서 학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향이 있다. 이런 사항들이 보니 일반 학생들이 학교의 발전방향을 알리는 만무하다. 또 계획자체도 매우 추상적이다. 연구원의 확충이나, 예산의 총합 등이 계획안이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이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학이나 국제대학원 설정을 위한 일시적인 노력에 불과하다고는 우려도 나타난다.

그리고 교수진간의 논의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것도 의문이다.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려면 직접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텐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는 없다. 학교당국은 '지역학의 매개'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단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된 발전계획과 그것에 대한 책임있는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학술부

알 린 니 다

본래 준비했던 좌담회는 참석자들의 사정으로 취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어와 지역학의 HEXAGON의 강지현(서양·불어 2)양을 만나다

“지역학 교수·자료 대폭 보강돼야”

-HEXAGON에 대해 설명한다면

=먼저 이름은 '육각형'이라는 뜻인데 프랑스 지도가 육각형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우리 학회는 지난 94년에 처음 출범했다. 지금은 1주일에 한번 수업이 있는 셈이다. 공부를 하고 있다.

-세미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

=먼저 연초에 1년동안 진행할 커리큘럼을 정한다. 그런 다음에 매주 발표자를 정하고 그 발표자가 주제를 선정해서 자료를 조사해온다. 그럼 그 발표를 듣고 서로 질문하기도 하고 토의한다.

-세미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안정적이다.

-지역학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외대는 지역학을 공부하는 학교이면서 자료가 풍부하다. 역사나 지리같이 보존적인 것은 찾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문화같은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찾기도 쉬운데 외대는 자료도 부족하는데 정리까지 안돼있어 더 힘들다. 그래서 주로 책을 사서보거나 타대학 도서관을 찾아가서 자료를 수집한다.

-지역학이란 학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용성이 있는 학문인 것 같다. 처음에는 우리도 잘 몰라서 규정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공부해보니 다른 학생들보다 프랑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관련분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학부에 지역학과목이 도입되면 반응은 어떤가

=내가 들어본 적은 없다. 지금 지역학회에 1학년회원이 적는데 후배들이 지역학과목이 생기니까 학회에 좀 필요성을 못느꼈다고 한다. 그만큼 기대가 컸던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보니 불어로 된 책을 통해서 해석하는 정도라고 한다. 또 수업을 듣고 있는 한 후배는 발표자를 정해서 조사·발표하긴 하지만 조사하기도 힘들고 자기 지식으로 되지도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교수진도 지역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아니라 프랑스에 갔다왔던 본 전공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들 정해서 하는 정도라서 아직은 그 실용성이 낮은 것 같다.

-학교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서관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자료를 많이 비치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한다.

●박상준(서구지역학과 석사과정)군을 만나다

“학교의 의지만 있다면...”

-지역학의 학문적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자기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외국을 공부하는 것은 도움이 되며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그리고 지역학은 실용적인 학문이다.

-실용적이라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산학협동같은 것인가

=산학협동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단은 먼저 기초지역학이 어느정도 성숙해야 한다. 그런 후에 응용지역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원하는 자료조사의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줄것은 주고, 그과정에서 연구자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실패도 있다. 줄것은 주고, 그과정에서 연구자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실패도 있다.

-지역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름답게 공부해 나갈 것인가하는 것이 많이 안달할 때가 많았다. 커리큘럼을 통한 공부의 흐름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학전문대학원으로 편제가 바뀌면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될 지 모르겠지만 전임교수의 총합도 시급하다. 학과별 전임교수가 있어야 그 과에 책임을 지고 커리큘럼 등 모든 문제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시급하게 변화돼야 할 점은

=일단 학부, 대학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3가지가 잘 제도화됐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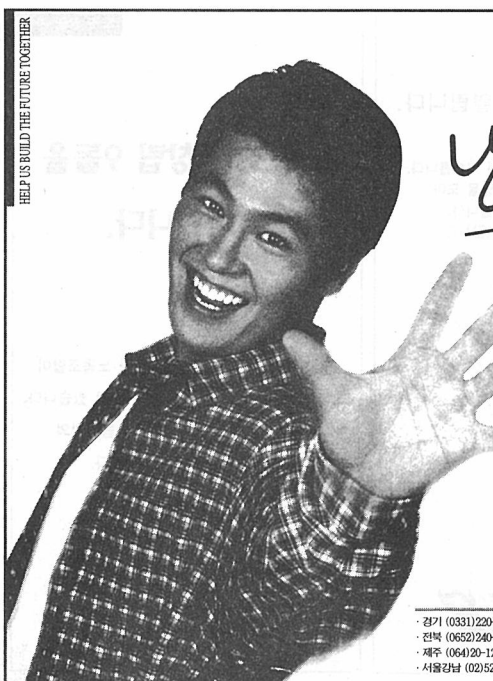
다시 말해 각 과마다 개설돼있는 지역학과목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이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서로간의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 대학원생 대부분은 학부에서의 전공과 관계없이 오는 경우가 많다. 또 한학과가 발전을 위해 투자한다면 석박사과정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두고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는 전문인력의 총합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할 수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교수들이 필요하다.

-지역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입장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의지이다. 학교에서 세우는 계획들이 학교차원에서만 논의가 아니라 학부들과 의견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대학원 설정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 학교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라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과마다 학생들이 학생들과 면담을 한다면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다.

이렇게 이뤄진 계획(이러한)이 추진과정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넌, 선택했어!

새로운 젊음의 시작!

익혀면서 배우고
보람 또한 있다면...
그래! 난 선택했어.

내 젊음을 투자할 미래가 있는 곳.
농협

· 강기 (0331)220-8611

· 권복 (0652)240-3016

· 제주 (064)20-1215

· 서울강남 (02)526-8612

· 강원 (0361)58-8036

· 전남 (062)220-7516

· 부산 (051)850-8043

· 대구 (033)256-2511

· 충북 (0431)52-6231

· 경북 (053)958-5014

· 인천 (032)420-2670

· 광주 (062)527-6501

· 충남 (042) 229-6103

· 경남 (0551)668-1632

· 서울강북 (02)707-6022

· 대전 (042)220-0822

'96 농협중앙회 대졸사원 모집

1. 모집분야 및 모집사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응시자격
일반분야	180명	· 학력 및 전공: 4년제 정규대학이상의 졸업자 또는 '97. 2월 졸업예정자로서 대학 재학년 또는 3. 4학년 평균평점 80점(100점 환산시 80점)이상이고 다음 각 제1항목 학과를 전공한 자 · 일반분야: 상경, 법학, 인문사회, 이공, 농과, 이공(전산포함) 계열 · 전산분야: 전산계열학과 전공 졸업자
전산분야	30명	· 연령: 20세 ~ 35세 · 학력: 4년제 정규대학이상의 졸업자 또는 '97. 2월 졸업예정자로서 대학 재학년 또는 3. 4학년 평균평점 80점(100점 환산시 80점)이상이고 다음 각 제1항목 학과를 전공한 자 · 전산분야: 전산계열학과 전공 졸업자

2. 전형방법

- 1차: 필기고사 (영어, 일반논문), 인·적성 및 사무능력시험 (단, 전산분야는 전산 적성검사)
-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발포지)
- 3차: 실용시험 (2차 합격자에 한해 개발포지)

3. 채용서류

- 지원서 (본회 소정양식)
- 학력 (TOEIC, TOEFL, JPT) 자격증 사본 (※필자에 한함)
- 취업보유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체검정서 (TOEFL, JPT) 성적서 (해당자에 한함)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일시: '96. 10. 16(수) ~ 10. 22(화) 09:30~17:00 (토요일은 09:30~12:00) 일요일은 제외
- 장소: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대강당 및 각 지역본부 본부

5. 수험료 교부

- 일시: '96. 11. 2 (토) 09:30~12:00
- 장소: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대강당 및 각 지역본부 본부 (※지원서 접수장소에서 응시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

6. 필기고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96. 11. 3(일) 10:00~13:10
- 장소: 수험료 교부서 한배

7. 기 타

- 병역필자, 보충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공인 학력시험(TOEIC, TOEFL, JPT) 성적서 우대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협중앙회 본부 인사과(☎ 397-5306~8) 또는 각 지역본부 본부과로 문의하면, 서울 중구 중로171 75번지(우 100-770) 서울 42대 직사각형원 및본원 위치.

농협중앙회

동성애자 모임을 준비하는 나영진군을 만나

“욕하는 전화도 온다, 그러나 예상했던 일이다”

동성애자 모임 추진, 공개적 활동은 고려중

얼마전 주변에서 한 낯선 전단을 찾을 수 있었다. 동성애자 모임을 갖는다는 내용의 이 전단은 교내에 많은 논란의 불씨가 되었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 전단을 제작, 배포한 나영진 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편집자

- 얼마전 교내에 붙여있는 전단을 봤는데 무슨 용기가 대단한 것 같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공론화하기로 했나

= 거칠게 밀고 나가 일반 학생들에게 억지로 알리거나 할 생각은 없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나만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라는 식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결국 동성애자들에게의 유대를 위해서이다.

- 편의를 위해서 '게이'라는 말을 쓰셨다. 편협했나

= 본래 '게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경멸하는 말투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나쁘게 들리는 것이다. '이반'이라는 말을 써도 좋다.

- 몇몇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나. 또 모임의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 10명이 조금 안되는 정도이다. 어떤 조서에 의하면 전 국민의 5% 정도가 동성애자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비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 대학 20명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 게이나 레즈비언을 비롯해 성적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여기에 기대는 아니지만 그 성적 대상을 이 불간단한 동성애라는 사람들이 연하되 되면 모임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가? '친구 사이'나 '까리끼리'처럼 매체를 통한 선전도 고려하고 있는가?

= 드러나는 활동은 없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선은 동성애자끼리의 유대감을 화를 목적으로 할 것이다. 사실 이미 활동하고 '친구 사이' 등의 사회단체 또한 대표를 제의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단체부터 자신이 '게이'라고 생각했는가

=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난 어떡하든 '게이'로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도 그것에 대한 정설도 없는 실정이라 뭐라 말할 수 없다.

- 남자자 남자자 여자자 여자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



을 사회적 편견이라 생각하는가?

= 그것은 가부장제의 산물이다. 사회적 편견도 될 수 있다. 타파해야 할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 다만 모두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 '게이'들도 결혼을 하는가

= 물론이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동성애자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혼자 산다는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이성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동성애자의 결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이성하고 결혼을 한다는 말인가

= 이상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성하고 결혼을 한 후 동성인 사람과 만남을 갖는 것이 우리 나라 동성애자들의 모습이다. 때문에 성적 고통이 크다. 또한 결혼 후에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는 사람은 그 고통이 더 심하다.

- 최근 TV를 비롯한 많은 매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동성애나 호미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매체를 통한 소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선 우리는 동성애자이다. 동성연애자가 아니다. 동성애자란 발파고 연애나 성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최근 매체의 보도가 좋지 않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리를 알게 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분명 이상한 편견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실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신원이 쓰이고 이해시켜야 되는 사람이지만 굳이 이것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 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이번을 계기로 추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 사실 전단이 뿌려지고 난 뒤 나를 욕하는 전화도 온다. 이상한 욕을 한다. 예상했던 일이다. 이번엔 학보에 나간 후 이것이 더 심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문화부

생활 시평

나는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내가 꾸는 꿈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꼭 꾸고 싶은 내용을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떨까?

혹시 이것 때문에 아닐까?

내가 지면서 꿈을 꾸고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장면이다. 나타나 억지스런 이유를 대면서 '나 이런 종류의 꿈은 꾸지마'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의 기억을 지워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음날 그 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영화를 보면서 그랬다.

영화를 보다 보면 어디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장면이 있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어떤 출현자는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누워있다. 꼭 꿈을 꾸는 듯 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던 모든 영화는 아예 보지 말고도 상영 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면 어느 날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끔 되었나.

너무 기분이 좋다.

비로 갈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나는 꿈도 기억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지난 번에 보았던 영화를 다시 보았다. 그런데 변한 것이 없었다. 아까 말한 그 사람은 아직도 전혀 죽는다.

영화를 만들 수는 있지만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그대로 삭제되어 있어야 한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뀔 것일까.

그날 밤 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꿈은 나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잠을 자면서는 꿈을 꾸지 말아라. 또 아침에 내가 꾸지 말라니 꿈도 꾸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아직도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보다.

문화부

유학생의 바에

또 다른 학기 '휴학'

실용적 언어습득을 위한 어학교육혁신 패아

"너 휴학했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언제부터는 우리는 첫 인사로 이런 말을 한다(이글을 쓰고 있는 기지도 벌써 잊어 들는 말이다) '휴학' 대부분의 대학생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단어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휴학'은 근대개념이고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생들의 여유를 찾기 위해, 또 취업을 앞둔 고학년들이 취업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부족한 학과공부를 바꾸며 어학 연수나 어학 학원 등을 다니기 위해 '휴학'이란 무기를 사용한다.

휴학생이 늘고 있다. 3~4학년 정도 되면 어느 친구들이 거의 보지 않을 정도로 너도 나도 휴학을 한다. 한 생애는 '휴학'은 대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얼마나 좋은가. 학교생활이 힘들 때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고등학교 때는 물론이고 후에 직장을 다닐 때도 쉬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휴학은 크리스마스 선물보다도 더 훌륭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달콤한 선물'이 결코 달콤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외국에서 외국어 학원을 가장 많이 다닌다'는 말이 나 올 정도로 본교생이 외국어 학원을 다니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외국'을 특화시켜 발전시키고자 했던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이 밖으로 끌려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이는 몇 년째 변하지 않는 어학 '카리큘럼'의 문제다. '외대'라는 특성을 살려 본교 출판부에서 실용적인 회화어 도음을 줄 수 있는 책 한권 펴낸 적이 없다. '이스트 웨스트' (EAST - WEST) '월치 와치' (CULTURE WATCH) 등의 실용영어 교재도 모두 외국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실용영어를 수강하고 있다는 일문(동양·이란 2)장은 '1학년 때 '영어어습'을 듣고도 이번엔 '실용영어'를 듣고 있다. 교재가 예전보다는 문법위주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한 학기 한학기'라고 지적한다.

휴학생들이 거기로, 외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연간 3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며 어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 그만큼의 돈을 투자해 방학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온다. 그래도 부족하다 싶은 학생은 '휴학'을 통해 6개월 코스의 어학연수를 1,000만원 상당의 돈을 한달(?)하러 다녀오는 것이다.

"단기 언어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방식을 배우고 건물을 넓혀서 이를 통해 평생 얻기 힘든 경험을 쌓는 기회"라고 얘기하는 신종훈(타이거)과 3학년 휴학생의 말처럼 어학연수는 책 속에서 교수의 강의에서 얻기 힘든 그 이상의 것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의 어학연수는 이처럼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어학'만을 배우기 위한 과정적인 문명이 정제된 지 오래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학연수를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학교 어학교육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김태형 기자



최근들어 많은 대학생들이 '휴학'을 이용해 어학연수하고 싶은 꿈을 이루고 있다. 특히 본교의 경우 어학연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또 돈을 들여 어학연수를 가가 편이던 편 대학에 다닐 필요가 있을까.

실용적인 언어습득을 위한 교육체계가 더욱 다급한 때이다.

시청각각 상영영화

날짜: 15일(화)
장소: 서울캠퍼스 대강당
제목: 영화모임 '올림'

**<1회-14시>
시드와 댄서(1996)**

감독: 알렉스 코스
주연: 케리 홀드먼

"섹스 피스틀스"(sex pistols)의 베이스 기타리스트인 시드 비셔스는 피스틀스 해산 후 애인 낸시 샤프의 도움으로 재단 받던 중 해로운 중독을 겪었다.

이 영화는 77년 시드 비셔스가 팀에 합류하여, 팀이 해체되기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2회-17:00>
코미트먼트(The Commitment)(1991)**

감독: 알란 파커

영국대생의 감독 알란 파커는 이미 <Frame>(The wall) 등으로 음악영화의 전수를 선보인 바 있었는데, <코미트먼트>에서는 황량한 소외의 도시를 배경으로하여 음악이 미처미처 소외의 세계를 박진감 넘치는 연출로 보여 주었다.

문화응답

말한다.

이 책은 주자학이라는 교의는 바로 인간 주자의 주체적 삶 자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주자의 일생을 하나의 학문-주자학을 중심으로 조망하고 있다.

내 영화의 담고이 수프

김영식,이승연,윤길/정적과 비평사/6,500

기존의 책이 인간 주자를 지나치게 성화시켰던 데 비해 이 책은 그의 인간적인 결함이나 심적인 고뇌를 묘사하고 있다.

특 주자가 흔히 말하는 '인격자'로서가 아니라 그 보다는 자라린 인간적인 모습을 잔뜩 집어넣어 채 포획하려는 사악함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그 격렬한 성의인정과 자기 작정까지 일순에 멈추지 않았던 근면함은 자신의 불완전성에 대한 깨달음을 연유한다고

이주석의 바다

감독: 허인화
주연: 소망방, 나기영

최근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치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화이다. 영화의 중심은 40대의 한 여이다. 자식, 남편 걱정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 등 이전에 겪지 못했던 격정을 한꺼번에 겪어야 하는 한 여인의 삶이 자신의 회상을 통해 극복한다는 내용으로 흥행 영화이지만 우리 나라의 상황과도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영화이다. 때문에 영화로의 개봉 당시 많은 여성 평론가들의 비평가들이 많지 않은 영화이다.

카 피 캣

감독: 존 이매일
주연: 시고니 위버, 윌리엄 더튼

"살인도 예술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최근의 많은 감독과 작품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 윌리엄 더튼이 그로고 '칼리포리아'가 그렇다.

이 작품 또한 이런 주제를 충분히 외적인 카피캣의 작품이다. 알반인로페는 도치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살인의 쾌감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승화시킨 이 영화는 많은 해외 영화 감독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구분	아침	점심	저녁
월(14일)	두부잡채국 (₩1,000)	쇠고기국밥 (₩1,400)	해장국 (₩1,400)
화(15일)	편장찌개 (₩1,300)	물오리안국 (₩1,500)	참치회덮밥 (₩1,500)
수(16일)	우거지국밥 (₩1,300)	콩나물국밥 (₩1,000)	순두부찌개 (₩1,300)
목(17일)	홍합무국 (₩1,000)	돈육가래볶음 (₩1,000)	탕수육덮밥 (₩1,300)
금(18일)	대구어문탕 (₩1,400)	육개장 (₩1,400)	얼갈이국밥 (₩1,400)

* 위 식단은 불물수급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식	중식 I	중식 II
월(14일)	만두탕수육백반 (₩1,300)	삼색불고기백반 (₩1,800)	함박스테이크 (₩2,000)
화(15일)	감자포추전골찌개 (₩1,300)	치킨스테이크 (₩1,800)	가자미에스테이크 (₩2,000)
수(16일)	짜장밥 (₩1,300)	쇠갈비무지국밥 (₩1,000)	햄스테이크 (₩2,000)
목(17일)	감자필라프 (₩1,300)	꽃게탕 (₩1,800)	족발스테이크 (₩2,000)
금(18일)	해시라이스 (₩1,300)	순대국밥 (₩1,800)	왕삼겹살(왕식) (₩2,000)

(재무·생물학부조각·총무처 후원)

표현의 자유 완전정착을 위한 결의대회

완전한 자유 향해 어우러진 몸부림



영화사전설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그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영화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사진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독립영화회의의 소극영화인들의 시위 장면.

지난 10월 12일(토) 명동 성당 앞(조성만 거리)에서 '영화 결의'를 위한 결의대회 및 표현의 자유 완전정착을 위한 결의대회'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결의대회'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원래 이 공연은 사전 심의의 철폐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연으로 기획되었으나 지난 4일(금)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검열 위헌 판결이 있어 행사의 취지가 철저히 기념을 자축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비록 사전 검열은 무효가 되었지만 '말만'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반법)을 비롯한 각종 검열 장치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실정이라 이와 관련 철폐를 위한 취지도 함께 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많은 호응을 얻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 왔는지 대변해 주는 자리가 되었다.

우선 1부는 변영주(기독교)와 재작사 '보일' 대표, '아시안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감독)씨의 사회로 진행되었

다.

김태원(대학원 사무국장)씨의 상황 보고를 비롯해 영화 제작 현장에서 실직적으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감독인 감독, 대학 영화회 연합 등의 애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이번 법정에 대해서 김명준(대학원 정책 실장)씨의 발표가 있었다. 계속해서 문화·음반·방송·민예총에서 자유에 관한 연대사를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1부는 이장호 감독의 선언문 낭독으로 끝났다.

2부 특별 영화 상영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의 발단이 된 '오! 나의 사랑'의 '나'를 교묘한 열매'의 제작자의 인사가 있었고 바로 지난 80년 제작되어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독립 영화로 손꼽히는 '파업 전야'의 상영이 이어졌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독립 영화 협회의 측은 행사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은 그날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많은 영화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며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를 추진해 온 영화인들의 자유를 얻어내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부

백작 제 5회 정기공연

척박함을 씻어내는
단비같은 공연

매마른 땅에 노래를 부르는 성경대 노래 '백작'의 제 5회 정기공연이 지난 11일(금)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다제이 덕, 패니 등의 대중가수의 노래로 풍미를 얹고 있는 캠퍼스에서 백작의 공연은 척박한 대중문화의 안타까운 소리를 아루만해주는 하나의 단비로 부러졌다.

90년대 결성되어 '밀어부쳐' '꽃' '혁명동지' 등 주목받은 노래를 만들어 외대 노래대의 신기원을 열었던 백작의 정기공연은 66학번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래대원들의 애마지간 감칠맛을 통해 공연의 절정을 이뤘다.

전날 외대본부의 공연으로 메탈음악의 흔적이 가시기도 전에 기타와 피노아 상자를 배경으로 불리워진 '창립자를 부르며' 등의 노래를 들으며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하면은 뜨거울까 부끄럼' 등 지...의 가사를 다스리며 재해석했다.

특별순서로 마련된 영어와 노래 '술집'의 공연에서는 '통일행진곡' '친구'라는 말' 등의 찬조곡을 불렀고 백작을 거쳐간 산배들의 축하공연에서 1기 백작 상임위원 백제길군은 '자신의 신념에 의해 지금도 처한 강유에 있을 박성동 총학생회장을 경배하며 그의 건강을 빌다'며 합창가 '밀어부쳐'를 합창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노래대장 정경철(경영 2)은 '5월달에 공연을 했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해 지금 하게 됐다'며 '힘든시기에 1학년 학생들이 많이 분열된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보고자 했다'며 1학년 학생들 중심으로 공연을 준비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래로서 힘을 주고 동지에게 힘을 주는 백작의 정기공연은 우리에게 '동지'란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는 장이었다.

서윤경 기자

문 화 단 신

서울

고전기타반 '취원' 스무번째 정기연주회 열려

본교 학생회관 4층에 클래식 기타가 울려 퍼진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다. 이를 기념하는 고전기타반 '취원'의 제 20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1일(금) 소강당에서 열렸다. 열광적인 학생들의 성원이나 함성은 없었지만 매 연주가 끝날 때마다 진한 박수소리가 돋보인 공연이었다. '쁘띠 앙상블' '트리오' '듀엣' '솔로' '앙상블' 등의 다양한 방식의 연주가 선보였고 그 중 앙상블(합주곡)은 솔로기타를 중심으로 고전기타반 대부분이 참여한 연주곡 'Concerto in D Minor'을 연주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악 그룹 '외인부대' 가을 정기공연 가제

본교 악 그룹 '외인부대'가 지난 10일(목) 노천극장에서 가을 정기공연을 가졌다. 가을 담지 않게 쌀쌀한 날씨 속에서 펼쳐진 이날 공연은 막을 풍어하는 본교생들의 감성을 해소해준 마당이었다. '위즈 건' '스미스' '헤이즈 미' (rap me) '그리프' (group) 등 막을 풍어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곡들을 비롯한 여러 곡들이 보컬의 열정적인 목소리와 기타, 드럼소리와 어우러져 노천극장에 울려퍼졌다. 한편 이날 공연에서는 '스크림' (SCREAM)이 초대 손님으로 나와 그들의 노래를 들려주는 순서도 마련해 추위 속에서 끝까지 공연을 관람하던 학생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다.

용인

고전기타반 '한시울' 제 16회 정기공연 열려

고전기타반 '한시울'이 결성의 계정을 맞아 제 16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오는 15일(화) 저녁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로스토크로 오스' (올 굿는 사람들)를 비롯한 합주곡 등 솔로, 트리오, 듀엣, 트리오, 듀엣으로 나뉘어 한 학기 동안 연습해 온 총 14곡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 김준영(음악 3) 1군은 '한시울 내내 다짐과 호소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문화 공연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공연을 준비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로렐라이 제 13회 정기공연 개최

독일어와 원어 합창단 로렐라이가 지난 12일(토) 본교 인문대 강당에서 제 13회 정기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알렉스 독일어, 독일어교육과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한 곡들 중 '음악의 왕국' 등 총 15곡을 들려 줬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실재의 무대는 후배들 못지 않은 열정을 보여 주기도 했다.

용인캠퍼스에서 울려 퍼진 로렐라이의 합창소리는 차분한 용인의 가을밤을 포근히 감싸준 공연이었다.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살아 숨쉬는 열린 영화를 꿈꾸며

영상사업단의 '영상주간'



수십만의 관객동원, 대형스크린, 혹은 사회적 이슈, 이런 말들은 현대 사회의 영화라는 매체 혹은 예술 분야의 주변에서 늘상 쓰이고 있는 말들이다. 이제 세계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가 되어가고 있다. 대기업은 영화사를 마구 사들이며 영화의 배급, 제작에 관한 출자 등 영화계의 유통구조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슬퍼한다는 것은 이미 늦어버렸다. 이미 예술영화는 따로 구분되어 전문영화관에서만 접해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신 한 번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보자. 과연 순수예술은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의 영화들이 현실사회의 지부를 거부하는 말초신화를 위한 것이고, 예술영화라고 불리우는 것들도 감독이나 작가의 고집만 세계관을 그럴 뿐이다. 더구나 이런 영화들도 그저 영화를 소유한 대기업의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에 작품으로 탄생조차 하지 못한다.

이러한 모순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독립영화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영화의 내용과 유통과정 모두를 제도영화의 것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이다. 우리는 이것을 '대안영화'라고도 부른다.

11월 중순에 영상사업단에서 영상사업단은 한편의 드라마를 학우들과 함께 제작하려고 한다. 때

우는 물론 소재를 공모하면서 제작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단지 보기 좋은 준비과정만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대중이 대중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대중의 손으로 직접 영상예술로 창작하고 향유하는 유통구조를 적어도 대안이라는 공간에서라도 실현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게재자의 첨단, 대작 영화도 볼만 하겠지만 살아 숨쉬는 열린 영화가 대안이라 간절히 바란다.

강성삼
(정책·신상 3, 영상사업단장)

용인 제 11회 FBS 방송제

재치와 풍자속에 피어난 방송문화



아침에 등교하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또는 집에 돌아갈 때 학내 이데이션 친구의 목소리만큼이나 정겹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할소리, 밝은 소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FBS교육 방송국이 바로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지난 10일(목) 저녁 대강당에서는 '혼돈을 들고 대학을 넘어'라는 주제하에 제 11회 FBS 방송제가 열렸다. 이번 방송제는 총 4부로 구성했는데 제 1부에서는 보도기획 '영의 연세'가, 그 특색있는 진행과 더불어 제도권 언론의 권위보도를 지극히 없이도 한층 한층 학생들을 거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하, 언론에 대한

"장기집권의 지름길 탐만 먹으면 다 되요! 국가보안 통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도 바빠봐"하며 고상하는 김 대통령의 모습으로 마친다. 이뿐 아니라 제도권과 학부생 문제를 비판하는 가발한 광고들이 나와 학생들로부터 강타를 자아내게 했다. 제 2부에서는 '대학문과 낙산문과 외대계시판'과 '명수당 오리의 하루'라는 풍자가 진행됐다. 첫번째 풍자는 학내 학생들 벽에 비추진 외대인들의 정서를 담겨 보여주는 자리로, 두 번째 풍자는 명수당의 오리가 바라본 외대를 코믹하게 연출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제 3부에서는 '취업대기실'이라는 제목으로 그야말로 현재 취업을 위한 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 심층분석하고 '2005년의 외대'라는 가상현실과 일인자의 '핑크 플로이드' (Pink Floyd)는 비디오 상영을 통해 공동학과의 연강, 취직공강이 되고 있는 대학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순서가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제 4부에서는 초대 손님 전정화가 '이방인' 등 노래 세 곡을 선사함으로써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는 약 6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많은 학생들의 관심으로 막을 내렸다. 진정한 대학문화의 향연이라는 그들의 노력과 그것을 학생들과 함께 하려는 그들의 공동체이식이 특별한 주류문화가 없는 이대에 돌리다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홍연희 기자

고객과 함께 세기로 미래로-삼성

삼성화재 스타지오펜 활동보고서(1)

“보고드릴 게 없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삼성화재 스타지오펜! 작년3월, 김성현 씨는 “자동차사고의 원인 및 유형”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출경비까지 자신의 책임하에 집행하며, 사무실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뛰다녔습니다. 그러나 1년을 결산하는 작년 2월, 김성현 씨는 보고할 게 없었습니다. 연구주제는 너무나 방대했으니, 그에 비해 1년은 너무나 짧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성현 씨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도 김성현 씨의 지난 1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괜찮고, 실적이 없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스타지오펜! 삼성화재는 1년동안 자율적인 체제를 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창조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스타지오펜 김성현 주임



제1회 사고예방논문 현상공모

용모지역 대학·대학원생(전문대 및 박사과정 포함) 및 산업계 해당분야 종사자

용모지역사립대 1997년 1월 20일(월요일)

용모지역

● 건축·토목부분의 사고예방 ● 화학·Plant부분의 사고예방
● 각종 제조산업에서의 화재예방

용모지역: 용모지역과 관련된 전문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고예방과 관련된 원천적인 기술논문 중 용모지역 상무 임원에게 제출하는 내용

용모지역: A4지 50매 이상 (논문요약 2매 추가)

당첨작 발표 1997년 2월 24일 개행통지

접수처 우편번호 100-19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9 삼성화재 위험관리연구소

선발 및 시상내역 (총 시상금 2,100만원)

구분	선발	시상내역	비고
대상	1명	대표이사표창, 격려금 500만원	500만원
우수상	2명	대표이사표창, 격려금 300만원	600만원
입선작	5명	대표이사표창, 격려금 100만원	500만원
장려상	10명	대표이사표창, 격려금 50만원	500만원

기타
●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의 원고에 대해 모든 판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용모지역 상무, 임원, 소속,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본인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모지역은 미발표작이더라도, 당선작에도 표지나 기밀표지로써 발췌할 경우 당선을 취소합니다.
● 저학원 사항은 삼성화재 위험관리연구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TEL: 02-775-0484 ~ 7)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SAMSUNG

삼성화재

11월 중순 '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결의

민주노총 노개위 불참선언, 더이상 양보 못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개혁위원회에 불참선언을 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방식으로 대중정치 투쟁을 전개한다. 사진:상대신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시대의원대회가 지난 10일 (목) 341성원관대 유원회관 3층에서 열렸다. 267명의 대의원중 216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이번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1부 개회식, 2부 본대회, 3부 결의대회 순으로 열렸으며 본대회에서 4개의 안건을 협의, 통과시키고 투쟁결의문을 채택했다.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정희정권 시절 개혁된 노동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왔다. 지난 투쟁을 바탕으로 올해는 꼭 노동법을 개정하고 올바른 노사관계를 회복하자"고 대회에서 밝혔다.

는 정부와 재벌측은 복수노조 금지조항 등의 노동악법을 개정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고비용 경제구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넘겨 임금총액통제 방안을 확정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리해고제와 근로개선제, 연월차 생리휴가 폐지까지 도입하려고 한다.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경제위기 극복은 높아진 가는 물가를 잡고 권리와 지대를 낮춰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기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재벌측은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단거리적이고 손쉬운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재벌측의 의도에 더이상 노개위의 참가가 득이 없다고 판단, 불참을 선언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단위노조별로 정경발생신고서를 11월 9일까지 민주노총에 제출, 10일 일괄적으로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시키고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중순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두번째 안건인 전국노동자대회 기획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키고 전야제를 포함한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또한 하반기 중집시인 전국순회공판과 전국노동자대회 비용을 일반 시민들이 지원하기로 불가한 한박기 투쟁사업비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전용하자는 안건이 세번째로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이외에도 기타안건으로 몇 개의 단위노조에서 올라온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특별결의문에서 민주노총은 "정부는 여전히 노동악법을 고수하려고 하고 노동자들의 주주적 단결권과 노동자적 주인의 보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의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해고지 복직과 구속자 석방,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활동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광범위한 의미의 실천적인 인권운동을 위해 만들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 인권운동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범위로 정기수나 양심수단체들의 한계만 있었다. 따라서 새롭게 인권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안으로의 운영은

-이제는 정립초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유기적인 연대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성원인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네트워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통과 교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들의 정성시에는 대표와 간사를 통해 운영될 것이다.

-현 우리나라의 인권운동에 대해 한마디 한마디

-인권운동이란 사람들과 같이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합의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인권운동은 아직 전무한지 같다. 어렵게 살았던 만큼 인권에 대한 의식이 아직은 희미하다. 아울러 현재지는 있는 인권운동의 범위도 지극히 한정적이다.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인권운동의 범위 확장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 인권운동에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활동방안은

-인권이 억압받고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 활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인권억압 현상을 찾아내고 고발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박병수 기자

인권운동 대학생 연대 창립 총회

인권운동의 새장 열어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아직 희미하고 인권운동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사진은 정기수 인권문제에 심각사를 알린 하루감옥체험이다.

지난 10월 1일(화) 인권운동대학생연대가 서울대 법대 경의상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발족 한다.

인권운동대학생연대는 서울대 인권동아리라고 이해돼 인권도입 수준한 사람들, 헌신대 인권준비모임 등이 모여 결성 하였고 연세-이화 연합동아리 평화사랑이 참가하였다.

인권-연대 창립식에서 박관인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은 축사를 통해 "인권 지키기를 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권증진자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대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축사가 있었고 장림배경 활동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창립사를 통해 인권-연대는 "인권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한국사회의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대학생 인권운동의 고리 역할을 하는것이 인권-연대의 설립 목적이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이후의 활동들을 위해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활동과 인권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인권정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인권연수나 정기적인 자원활동을 통한 인권지원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화 인권-연대) 대표 박신혜(이화여대94)를 만나

"인권운동이란 사람들과 인권이라는 것을 함께 해 가는 과정"

-인권-연대를 결성한 이유는

민주노총 기자간담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한 대중정치투쟁으로 노동법 개정하겠다"

전국대하신문기자연합은 10일(목) 성원관대에서 노개위의 활동과 민주노총의 이후 투쟁방향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노개위의 활동은?

-지난 5월에 결성된 노사개혁위원회는 10월 7일 현재 제 10차 회의까지 마친 상태이다. 예초 노동법 개정 자체가 OECD가입을 위한 형식적 조항이었다. 노개위측은 고비용 경제구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등의 악법을 도입하려 하는가 하면, 전교조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는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의 주장을 계속해 노동조건과 노동법을 더욱 악화하려 한다.

-민주노총이 노개위에서 불참 선언을 한 배경은 무엇인가?

-민주노총에서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노개위의 참여와 대중적인 정치투쟁이라는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 사용했다. 노개위로 대표되는 정부측과 재벌측은 처음부터 집권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막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 또한 협상이 진행될수록 정부와 재벌은 복수노조금지, 제 3자 개입금지 등의 대표적 노동악법들도 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노개위내에서의 협상은 더이상 득이 없다고 판단, 노개위측에서는 수정안을 내놓기 전까지는 노개위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개위에서 완전히 탈퇴한 것인가?

-노개위에서 탈퇴한 것은 아니다. 노개위 측에서 노동법 개악 의도를 철회하고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다시 노개위에 들어가 협상을 계속할 수도 있다.

-지난 5개월동안의 노개위 참가에서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현재까지 노조의 정치활동보장과 노조 설립 신고 제도 개선, 산별노조 결성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 등등의 많은 합의안을 얻어냈다. 그보다 더 큰 성과는 노개위 참여를 통해 노동법 개정과 노동악법 철폐에 대한 노동자들과 조합원들의 관심과 의식이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후의 투쟁방향은?

-11월 10일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정 법안이 상정되는 11월 중순경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노동법개정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따라서 이후 투쟁은 노동자들의 법개정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중들의 문제로 한층더 단결하고 이제 자본과 재벌의 논리로 경제 위기를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 대한 극심한 탄압이 예상되므로 50만 노동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동법 개정을 이룰 것이다.

임혜진 기자

사회단신

대동제 기간 서울대 농대 침탈
농대 학생회장 불법연행

연세대 전투경찰, 백골단 침탈
해오름식당 서총련 의장 검거 목적

지난 10일(목) 자정쯤 경찰들이 서울대 농대를 침탈해 건물들을 수색하고 농대 박종동 학생회장을 연행했다.

서울대 농대는 10일과 11일 양일간 대동제 기간중인 지난 10일 자정 대동제 개막식 도중 학교를 침탈해 농원사를 비롯한 농대 건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있던 대학원생들에게 영장 제시도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연구실을 수색했다.

이날 침탈로 경기남부총련 조국통일위원회 농대 박종동 학생회장이 연행됐다.

농대 중앙위원회는 11일(금) 4시 민중경찰에서 학교침탈과 학생회장 연행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학원침탈을 보면서 김영삼 정권을 본질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정권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실권을 잡은 정권을 알았다"며 "공안인탈을 본래하고 박종동 학생회장을 반드시 석방시키겠다. 그리고 학교당국의 학교침탈 승인을 무효화 하고 학교의 승인이 없었다면 경찰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11일(금) 오후 6시 30분경 연세대학교에 약 1천명의 전투경찰과 백골단이 투입됐다.

현재 연고전 형사중단 연세대학교는 이날 민중경찰에서 연세대학교 제 33대 총학생회 2학기 해오름식이 진행 중이었고 침탈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박병관(연세대) 대변인 겸 서총련 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한 직후 일어났다.

박병관은 중앙도서관 정문으로 파견됐고 전투경찰과 백골단은 연세대학교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이파대 건물과 중앙도서관 주위를 둘러싸고 6시 40분경 중앙도서관 내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도서관 안쪽에 있던 500여명의 학생들의 완강한 저지에 박병관 검거에 실패하고, 7시 30분경 학생회장 대표와의 합의에 의해 학교 정문 밖으로 철수했다. 이후 학생들은 민중경찰에서 정리질 및 해오름식 폐막식을 계속 진행했다.

8월 연세대총학생회장 박병관이 계속 지켰고 있는 것에 대해 학교측은 "정권이 증거보존신청을 했고 수배자 검거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내침탈을 막을 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선경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선경을 키웁니다.

선경은 멈추지 않는 힘입니다.

선경을 움직이는 원동력, 그것은 선경인의 패기입니다. 패기란 인과 싸워 이기는 기질로서 적극적 사고, 진취적 행동, 반쯤고쳐야 할 일처리를 말합니다. 선경은 이 패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종합에너지·종합화학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또한 정보통신사업에도 진출하여 글로벌라이선 시대의 세계인류기업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선경으로 오십시오. 멈추지 않는 힘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선경의 힘은 인재를 키우는 투자에서 비롯됩니다.

선경에는 인재를 키우는 프로그램들이 가득합니다. 세계 30여 개국에서 최고 한달에 동안 실시하는 '집입사원 해외전지훈련', 1년간 해외에 파견, 현지 전문가로 키우는 '파이오니어 포스트', 해외 비즈니스 스쿨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 차세대 경영자를 양성하는 '장기 해외수료 프로그램',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해 미국 유수의 국제 경영대학원에 개설된 '선경 Thunderbird 프로그램', 과장, 차장급 사장이 될 수 있는 '사내기업가제도' 등등. 이렇게 선경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는 선경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1년, 365일 선경이 인재를 모집합니다.

● 정기공채를 폐지하고 선경채용상담실에서 연속상사로 입사면담을 물론 지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365일 인터넷으로 지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 대학 4학년 이상의 학령이면 누구나 선경에 응시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인사담당자: Web Homepage ● E-Mail

SUNKYONG
鮮京그룹

정국회 개정법안 관련 설문조사

안기부법 개정·노동법 개악 과반수 반대 대학언론 탄압 74% 부당하다

이번 정국회 회기동안 향후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 다뤄진다. 노동법, 안기부법, 교육법, 사회복지예산, 국방예산중역까지,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하려는 법안들이 사태를 역행하는 부분으로 나타낸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문·왕산 각각 100명씩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질문이었던 안기부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52%의 학생들이 반대했다. 5·6급 시대의 안기부의 활동과 최근의 활동상을 보면 안기부의 권한 강화는 곧 공안정국 분위기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 같다. 이외의 37%의 학생들은 안기부 수사권 완전 확대는 반대하지만 부분 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얼마전에 타진 위장공비 사건과 언론을 통해 파장된 연대 통일투쟁이후에 형성된 대북 위기감과 표현인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질문에 응답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라도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것은 우리의 노동현실이 얼마나 낙후되었고 억압적인지를 학생들이 적·간접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질문인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증액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5%와 20%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방비 관련 지출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견의 반영일 수 있다.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0%나 나왔는데 이는 중대한 무기나 군사장비 도입보다는 군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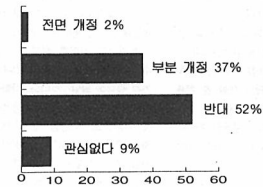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회복지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는 절대 다수인 85% 학우가 복지예산의 축소를 반대해 현 우리사회의 복지 수준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에서의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문제와 관련해서는 94%의 학생들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응답해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 선거에서 보여졌던 정부와 여당의 관공개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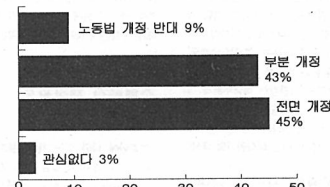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질문한 요즘 행해지는 공안정국 조정의 일화인 대학신문 탄압과 관련해서는 74%의 학우가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 받아야 된다고 응답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타의 의견이 많았는데 특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진실보다도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사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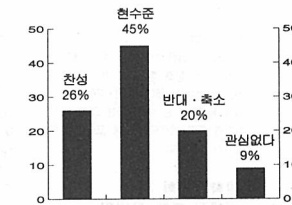
1.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강화에 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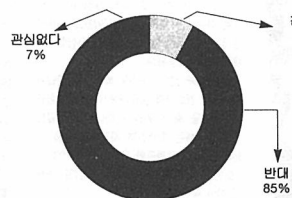
2. 노동법 개정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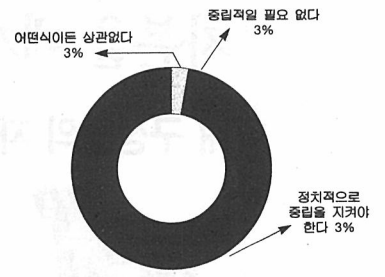
3. 국방비 증액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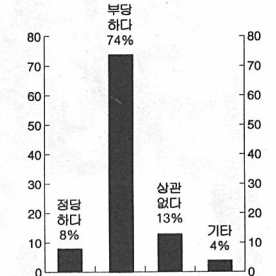
4. 사회복지 예산 축소에 대한 견해



5. 검찰과 경찰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견해



특검설문 대학신문 탄압에 대한 견해



글 쓰는 순서

1. 한총련에 대한 왜곡 보도
2. 보도지침의 편향에 대해
3. 국제적 망신인 북한 '오보'
4. 언론과 재벌·권력과의 관계
5. 우리 언론이 나아갈 길

본보는 '한국언론을 진단한다'는 시리즈를 통해 한국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해왔다. 이번 회에서는 한국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언론운동의 역할을 건국대 신방과 유일성 교수 전국언론노동조합총연맹 이항우 위원장, 건국대 학신문기자연합 전승수 의장을 통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대체언론의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언론이 갖는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언론의 소유구조가 주식회사 형태라는 점이다. 주식회사는 특성상 주식이 많은 사람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현재 언론에서는 현대, 삼성 등의 재벌들이 대주주가 있다. 당연히 재벌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둘째로는 언론인 개인의 문제이다. 기성 언론인들은 5, 60년대의 사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들어오는 언론인들도 직업윤리나 언론관을 가진

이들이 아닌 시험점수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론사에 들어가기만 그 원인이 될 것이라 본다.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일반은 주식회사 이외의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보도재단이라는 형태가 있다. 또한 언론인들이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면 소집단의 이기주의보다는 민족 공동체나 민족화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대체언론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안에서 대학신문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신문은 스스로 의식개혁을 통해 사회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또한 전자 독자를 확보해 기성언론과 질적 승부를 해야 한다.

유일성 교수(건국대 신문방송학과)

수용자 주권회복운동을 펼쳐야 한다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언론이라는 것은 이사회와 공공성을 함께 여러 현상에 대해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은 다수의 대중이 합의해나가는 방향이다. 또한 역사를 기록하고 조국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에 대해 평가한다면
=기성언론들은 권력, 재벌과 협조하면서 자식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언론을 재벌이 소유하다보니 힘이 분산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론은 주인을 바꿔가며 봉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언론인들에게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있고 올바른 언론관이 교육되지 못해 시민들의 합의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언론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민간 방송위원회의 독립과 장기간헐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돈많은 사람만 신문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현재의 법·제도들도 언론의 부패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수용자 주권회복 운동을 힘있게 펼쳐

나가야 한다. 언론을 믿고 지지 눈물 똑바로 봐야 한다.

이항우 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총연맹)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제도언론에 대한 생각은
='월의 제 4부'라는 말이 단적으로 그 특징을 말해준다. 우리사회는 사회지배층이 언론을 소유하고 있다. 언론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언론인들도 도덕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지면화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대학언론의 특수성은
=자율리듬과 아카데미즘의 조화로운 융화가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대학사회는 그 자체의 특성이 진보적이고 가장 활동적인 학생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대학언론은 기성언론보다 더 고민이 많아 하고 책임 또한 막중하다. 올바른 세계관과 언론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승수 의장(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제살깎기를 통한 참언론으로 바로서기 국민의 품에서 언론사명 수행해야



나의 본적은 지구市

2005년 세계 최고의 일터를 실현합니다
② 글로벌 인재 육성 편

LG는 '로컬 매니저'에서
'로컬 비즈니스 리더'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에 걸친
3단계 과정을 통해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제 감각과 능력을 지닌 인재-
그들이 LG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갑니다.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맨으로
될 수 있는 일터-
LG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LG/인재개발위원회
TEL: 3773-2185 FAX: 3773-0588

LG는 정기 및 동우회기, 최고의 인재로 만들기, 최고의 보람을 받도록 만들기, 최고의 보람을 받도록 만들기, 동우회 2005의 실현 사업들을 하-로 글로벌 인재육성합니다.

대 학교육의 희망찾기⑤- 올바른 대학평가

대발전의 새지평을 위하여⑤- 대학발전재원의 확보

자본을 매개로 한 대학경쟁책

학내 구성원의 자주적 참여가 평가 척도 돼야

건축재정으로 승부한다

최우선 과제, 전임금 확보



학내 구성원의 자주적 참여가 올바른 대학평가의 척도이다.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한계는 명확하다. 평가기간에 한해 한시적인 변모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의해 유도된다'는 대학평가는 그 효력이 떨어지면 즉각 예전의 대학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대학민주화 저해 태생적 한계 못벗어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도입 이후 우리 대학은 △학사운영의 비민주성과 학생자치활동 탄압 △재정부담의 가중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그 예로 교육과정 개정이란 명목으로 학부재가 축소되기도 있었으며 등록금은 5년새 두배로 뛰었다는 말이 유행했듯이 재정부담이 가중됐다.

우리 대학 뿐만 아니라 학생자치 탄압의 일환으로 경희대와 고려대에서는 95년 하계 학사공개를 축소시키려다 학내규율 일조 최고 상벌에 학생자치 단체요건 강화 운운하며 학생자치활동의 탄압을 제기했다.

또한 세종대, 한남대 등의 학보검열·통제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연세대 통일투쟁을 보여준 일련의 학생자치탄압도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공생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대학당국의 탄압이유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운영은 대동령을 빌미로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95년 대동령을 앞두고 17%의 등록금을 인상했던 한양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학교는 당국의 학교운영에 쉼이 없다는 태도로 쓰지 않고 학생납입금을 올려 다음으로 이월시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받을 때 정부 소외를 회피한다.

97년 대동령을 받는 우리 현상에서 내년도 등록금이 담원문제로 떠오를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동령에 대해 본교 졸업생은 '우리 사회에서 대동령은 책박과도 같다. 날카로운 바늘을 감추고 생명을 위협하는 미끼인 것이다'며 '이후에 있을 최형, 교육시장개방과도 거센 종파를 가리기 위한 술수다'라고 자신이 느끼는 대동령의 본질을 설명한다.

우리의 평가는 '경쟁'이 아닌 '내실'로

정부의 국책대학 선정 심사위원 파견을 앞두고 한 학내활동인 서울캠퍼스 정문에 '을

비하는 외대, 세계를 호응하는 외국어 대학'이란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육재정확보와 학생참여 보장'이란 학생들의 의지를 무마하고 정부당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대학당국의 모습 속에서 학내구성원들의 자주적 참여없이 일방적인 대학발전을 꿈꾸는 모습은 외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다. 대학평가는 경쟁을 배제하고 획일적이지 아닌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변모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

그러기에 선진국으로 따라야 할 것은 학원주체들의 요구에 열린 학사운영을 꾀해야 한다. 외대학원이 아닌 민족의 학문을 배우는 '지구강국', 강의의 집적 향상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의평가제',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실천하며 배우는 '현장학습제도', 불공정 교수임용의 비리를 타파하고 우리의 교수수를 추진하는 '시간강사 학사운영제' 등 우리의 요구는 수없이 많다. 단순히 수치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우리

가 요구하는 지점이 바로 대학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학생구성원의 자주적 참여가 평가원칙

97년 대학종합평가를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도는 평가를 미루는 것이다.

올 10월 교육부 국경감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98년 대상이후 감경감사부의 교육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은 98년 이후로 평가를 연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과 같은 평가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학의 낙후성과 부실성은 대학평가를 하고 대학교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제도의 투사 부재와 학교경영자들의 교육자적 자질, 나아가서는 정부당국의 문제인 것이다.

대학평가는 어느 대학이 낫고, 못하는 식으로 대학의 수위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대책의 마련,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 수렴과 반영을 통한 대학발전 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대학평가를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자주적 참여가 먼저 보장돼야 한다. '학원자주의 실현'이 바로 올바른 대학평가와 대학발전계획의 수립이 전제적인 대학발전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사립학교 운영의 80%는 등록금.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교육재정확보의 문제가 정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96년, 외대의 재정운영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안을 토대로 알아본다.

계획안의 8장에 '대학발전재원의 확보'라는 이름으로 실려있는 교육재정에 관한 부분은 본 사람이려면 제일 먼저 본교의 재정확충 방안은 대학발전재원의 확보라는 큰 명제를 떠나 예산의 건축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계획안을 만들 4년 전 당시 외대는 적자운영 상태였다. 이에, 한정된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하는 예산과 직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운영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대학의 계획은 건축재정으로 집약된다.

주체적인 재정확보 방안

계획안에 나와 있는 재정확보방안은 크게 △재단전임금 확대 △기부 모금운동의 체계화 △학생부지 원금 확충 △학교재의 방형으로 나뉘고 이를 위해 총장직수 기

관인 '21세기 외대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외대발전위원회는 '대학발전'에 필요한 재정자원의 확보를 위한 '자문역할'의 본래 취지를 떠나 학부도 간담회, 기부모 금운동 등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발행하기로 했던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교채' 역시 지금은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안에서 사정되고 있는 뿐이다.

재원확충의 확실한 주체인 학교 법인에 대한 본교의 태도가 절실 하다.

△재단전임금의 수시사업화 △부동산 매매에 의한 외관화라는 두가지 방안이 나왔던 재단전임금 확충방안은 지난 11차 협의회 시무 과장이 '재단법정에 어쩔없이 처치하고, 동원농산물 관공관리를 조 성해 수입의 80%를 전임금으로 확보하겠다'는 확답한 것을 본 현재 10억정도를 전임금의 형태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라는 부분은 사실상 진전되지 못했다.

한편, 정부의 지원이란 측면도 올 10월말 현재 40억정도 지원될 국책대학선정방면에 전력을 다하

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지출억제로 흑자 재정 노린다

효율적 예산 추진 방안으로는 △장단기 예산 도입 △예산의 자율 책정 △내부감사제도의 도입과 상

법제도를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동안 적자운영으로 몸살을 앓아온 본교의 예산 운영에 대해 '신 규사업법'을 억제하고 학생지도, 관 공비, 학생행사보조비 등의 소비적 지출을 억제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재단전임금 확보 절실

이와 관련 예산과의 관리하에 예산의 자율성을 꾀하고 내부감사 제도를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없이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는 명제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다 것이다. 사학운영의 80% 이상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기난한 재단' 운운하며 교육기관의 책무를 지버리는 사립대학의 현실은 단순한 책자의 완성으로 계획안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부

신 양반전

○...옛날 옛날에 아주 명절하고 결미만 든 노비가 있었다고 하대요.

양반들이 주축이 된 '끼리끼리 잘 살아보세'라는 사교클럽에 들 어있는 자기가 양반이 된날 운동 내를 활보하고 다녔는데...

이름 본 끝대왕 '000'에 가입 했다고 선전국이 되는 것이 아닌 거처럼 나가 끼리끼리클럽에 들 어있다고 양반이 되네

(희)

○... 원시시대, 겨울나기 위한 부족사냥대회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한 여성 감사가 말하 기를 '이번 사냥에서 우리의 자

람스킨 개들이 여성들한테 성 추행을 했다'며 개들의 처벌을 주장 하자 개들을 사육하는 다수의 감사원들이 '어떻게 착한 개 들을 비난할 수 있느냐'며 여성 감사원에 대한 자질 문제를 강력 히 제기했다는 옛날 이야기.

이 더 중요해'라고 말했다는 사 실.

○...중앙계사원에 공고가 붙었다. 제목은 '외대 비둘기 비상 일시 종의 소집'

이유인즉 총학생회에서 재단과 학교에 대한 청의로 본도의 나팔을 점성하고 자에게 분간 붙여 새 개 비둘기들이 경기를 일으킨다 고.

여러 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거 쳐 경희대 도주, 방음장 설치 등 의 대안이 나왔으나 결국 뚜렷한 대책은 찾지 못하고 본도의 나팔 에도 의한 학교와 재단에 '사 약'을 든 사자를 보내기로 했다 고.

(꿈)

비둘기 사설

비둘기칩판

이문 벌

○알립니다

·외문학사 모집
때: 10월 31일까지
부서: 소설, 시(30페이지) 번역(영문)
상금: 소설-당선작 40만원 가작 20만원
시-당선작 30만원 가작 20만원
번역-당선작 20만원 가작 10만원
문의: 이문-학생회관 209호 (02)961-4409
왕산-학생회관 301호 (0335)30-4167

(국립한글학회)

·10월 '최정경사'
때: 10월 21일(월) 늦은 2시, 29일(화) 늦은 3시
무료입니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신방과 제 4회 학술제
때: 10월 14일(월) - 16일(수) 늦은 5시
곳: 대학원 104호, 소장당

(신문방송학과 학생회)

·제 1회 영상주간 위하 소재 및 배우 공개모집
때: 10월 15일(화)까지
공모방법: 외대인 누구나 지원서를
이문봉의 공모전에 붙여주세요.
소재: 실형, 비관정신에 가진 대학 생활의 모든 것.
연락처: 015-299-9780 (장영희)

(영상사업단)

·개인적인 사연이나 학내 문제에 대한 의견, 신청공통
을 받습니다. 신청장은 총 생활에 주세요.
접수당일에서 1주일 후 발송
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12시 반 - 1시

(FBS)

왕 산 글

○알립니다

·왕산공동체식 확대와 조상들의 삶재목을 위 한 우리 문화 유산 답사에 참여합니다.
장소: 경남일대
때: 11월 1일(금) - 11월 3일(일)

참가인원: (교수, 교직원, 학생)중 선착순 45명
참가비: 45,000원 (조상제: 40,000원)
접수일: 10월 8일 - 10월 25일
접수주소: 생활 학생위원의 사무실

(생활협동조합)

·환경보호 모임인 '알삼초동'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 96학번 누구나
때: 10월 29일 늦은 5:30
곳: 학생회관 312호
연락처: (0335) 30-4406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알삼초동)

○축하합니다

·오세훈 선배님과 최영인 선배님의 입사를 축하합니다.
(이대별리)

·국토순례단 대강 이종현 선배가 군대를 가십니다.
열심히 공부하길 건강히 돌아오세요.
(국토순례단)

(국토순례단)

○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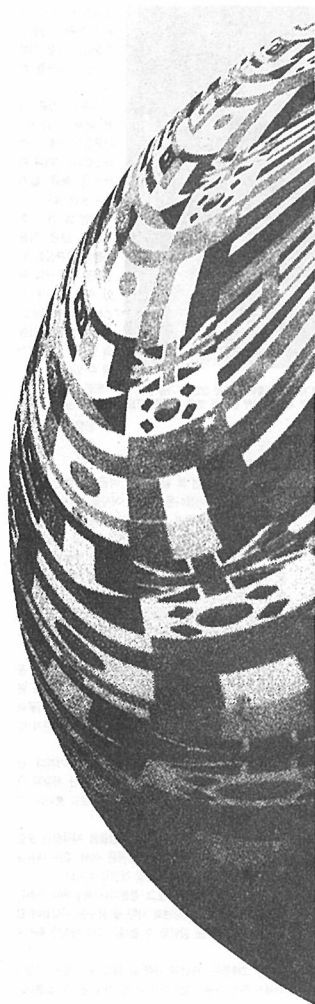
·경복궁 순례가 있습니다
때: 10월 29일 (토)
곳: 광화문 앞 이문 11시
회비: 만원
(국토순례단)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세계를 하나로, 조국을 통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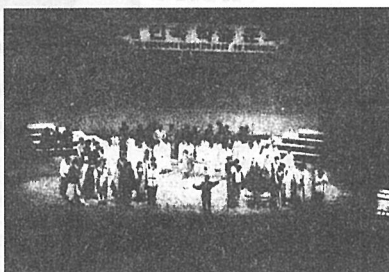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제3회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



지난 12일(토), 13일(일)에 열린 제3회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의 1회공연. 재학생을 포함한 600명의 관객이 리틀 연필스튜디오를 찾았다. 많은 학부모님과 각국 대사의 관원으로 행사가 더욱 빛났다.



유럽 여러나라 공연 중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노아과 '까르부쉬카'의 농민춤이다. 빠른 국조에 맞춘 원만한 춤동작으로 러시아 특유의 대륙적 기질을 표현하였다.



공연 전 출연자들이 모여 마지막 피레이드를 연습하고 있다. 1년에 걸쳐 준비해온 이들의 긴장된 모습에서 공연에 임하는 전지함을 느낄 수 있다.



관객들에게 공연행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게 한 일본어과의 '소모'공연. 중국어과의 태극권, 태국어과의 춤에 이은 동양권 문화공연으로 스모산수와 비슷한 세력의 학생이 출연한 강기도습은 관중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공연장 아래의 대기실에서 행사전 민속복장을 입고 화장을 하며 서로 도와주는 출연자들의 모습이다.



행사 마지막을 장식한 한국 진도지방 강장술래 공연이다. 옛 여인들의 일상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 돋보였고 뒤미는 풍물패와 춤패의 공연은 한세기 통일한국의 하나됨을 보여주었다.

제작: 사진부

날씨가 쌀쌀합니다.

외대를 바꿔보겠노라고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셨던
총학생회장님은 구치소에 계십니다.
얼마전 우리가 한푼 두푼 모금할때 넣었던 돈이
10일자(금) 한겨레 신문에 광고로 실리기로 했습니다.

무언가를 잊어가는 계절입니다.
잊을 것 다 잊어도 외대발전만은 기억합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외대학보사 기자들도 시험을 위해
2주동안 독자 여러분을 만나볼지 못합니다.
시험 잘 보시구요
저희는 11월 4일자 신문으로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